

F1001 팀챌린지자산배분A형(IBK자산운용)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팀챌린지자산배분A형(IBK자산운용)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IBK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
| 펀드 명칭 | 팀챌린지자산배분A형(미래에셋자산운용)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6609 | | |
| 펀드의 종류 | 변액보험, 추가형, 종류형 | 최초설정일 | 2015.08.03 |
| 운용기간 | 2020.01.01 ~ 2020.03.31 | 존속기간 |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
| 자산운용회사 | ABL생명보험 | 펀드재산보관회사 | 우리은행 |
| 판매회사 | ABL생명보험 | 일반사무관리회사 | 하나펀드서비스 |
| 상품의 특징 |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집합투자증권, 상장주식, 채권 등을 이용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 펀드명칭 | 항목 | 전기말 | 당기말 | 증감률 |
|----------------------------------|-------------------|----------|--------|--------|
| 팀챌린지자산 배분A형 (미래에셋 자산운용) | 자산 총액 (A) | 3,594 | 3,383 | -5.87 |
| | 부채 총액 (B) | 3 | 21 | 683.69 |
| | 순자산총액 (C=A-B) | 3,592 | 3,362 | -6.38 |
| |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 3,434 | 3,503 | 2.01 |
| | 기준가격 (E=C/D×1000) | 1,045.91 | 959.85 | -8.23 |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동기간 글로벌 증시는 중국에서 시작된 COVID-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급락하였습니다. 2월 후반에는 IMF가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중국 및 세계경제 성장을 둔화를 언급하였고 미국 본토에서의 확산 가능성과 프로그램 매도세도 더해지며 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S&P500 지수는 전고점 대비 10% 넘게 급락하며 조정장으로 돌입하였습니다. 3월에도 글로벌 증시는 COVID-19 확진자 급증의 영향으로 급락하였습니다. 월초 2월 급락에 따른 반등의 기미가 잠시 있었으나 유럽의 확진자 급증과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확산 우려로 중반 이후까지 패닉 셀링이 이어지며 급락세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산유국간의 원유 감산합의 불발과 사우디의 증산 결정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반토막 나며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WHO의 팬데믹 공식선언 이후 미 연준은 월초 50bp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100bp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무제한 양적완화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시장은 정책 기대감으로 낙폭을 일부 완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COVID-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방어를 위해 글로벌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전례 없는 강력한 부양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중시도 반응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강도에 비해서는 증시의 반등 폭이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단기적인 시장의 우려는 완화되었지만 실물 경제와 기업실적의 타격 정도가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정책적 대응의 정도와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Fed는 FOMC 성명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으며, 2조달러가 넘는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연간 GDP의 10% 수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따라서 4월에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실적 관련 자료들이 시장에서 소화되면서 증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증시 하단이 최근 급락수준 이하로 재차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현재 COVID-19 확산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확산속도가 기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줄어들지 않을 경우 시장의 피로감이 가중되며 변동성 기각이

다소 길어질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급격한 포지션 변화는 지양하며, 성장전략의 점진적인 비중확대와 헤지 포지션의 점진적인 축소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 구분 | 최근 3개월 | 최근 6개월 | 최근 9개월 | 최근 12개월 |
|----------------------|--------|--------|--------|---------|
| 팀챌린지자산배분A형 (IBK자산운용) | -8.23 | -3.50 | -4.89 | -3.65 |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 구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
| 팀챌린지자산배분A형 (IBK자산운용) | -3.65 | -9.95 | -5.92 | - |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증권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손익 합계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 장내 | | 장외 | 실물 자산 | | | |
| 전기 | 0 | 0 | 0 | 186 | 0 | 0 | 0 | 0 | 1 | -8 | 178 |
| 당기 | 10 | 0 | 0 | -273 | -55 | 0 | 0 | 0 | 0 | 11 | -3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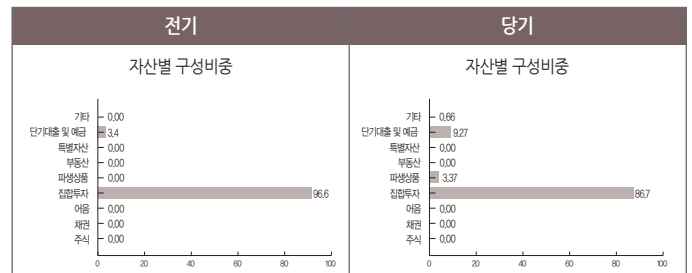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증권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 장내 | | 장외 | 실물 자산 | | | |
| JPY (11.22) | 0 (0.00) | 0 (0.00) | 0 (0.00) | 83 (2.46)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71 (2.10) | 0 (0.00) | 154 (4.56) |
| USD (1217.40) | 0 (0.00) | 0 (0.00) | 0 (0.00) | 2,255 (66.64)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44 (1.30) | 0 (0.00) | 2,299 (67.94) |
| KRW (1.00) | 0 (0.00) | 0 (0.00) | 0 (0.00) | 595 (17.59) | 114 (3.37) | 0 (0.00) | 0 (0.00) | 0 (0.00) | 199 (5.87) | 22 (0.66) | 930 (27.50) |
| 합계 | 0 | 0 | 0 | 2,933 | 114 | 0 | 0 | 0 | 314 | 22 | 3,3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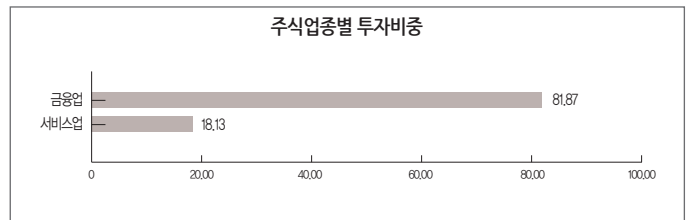
※ () :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

| 업종명 | 비중 | 업종명 | 비중 |
|--------|-------|-----|----|
| 1 금융업 | 81.87 | 6 | |
| 2 서비스업 | 18.13 | 7 | |
| 3 | | 8 | |
| 4 | | 9 | |
| 5 | | 1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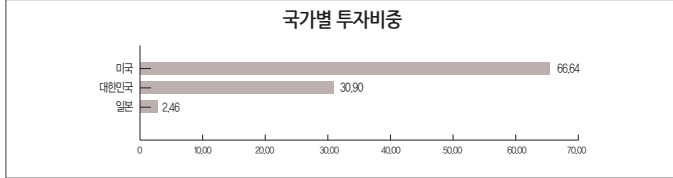


주)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

| 순위 | 국가명 | 비중 | 순위 | 국가명 | 비중 |
|----|------|-------|----|-----|----|
| 1 | 미국 | 66.64 | 6 | | |
| 2 | 대한민국 | 30.90 | 7 | | |
| 3 | 일본 | 2.46 | 8 | | |
| 4 | | | 9 | | |
| 5 | | | 10 | | |



▶ 환헤지에 관한 사항

| | |
|----------------------|--|
| 환헤지란?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
|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만큼 환 평가 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만큼 환 평가 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단위 : %, 백만원)

|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 기준일(20.03.31)현재 환헤지 비율 | 환헤지 비용 (20.01.01 ~ 20.03.31) | 환헤지로 인한 손익 (20.01.01 ~ 20.03.31) |
|--------------------|------------------------|--|----------------------------------|
| 100 | 85.3 |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 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통화선물

(단위 : 계약, 백만원)

| 종목 | 매수/매도 | 계약수 | 미결제약정금액 | 비고 |
|---------------|-------|-----|---------|----|
| 미국달러 F 202004 | 매도 | 172 | 2,092 |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 구분 | 종목명 | 비중 | 구분 | 종목명 | 비중 | | |
|----|--------|---------------------------------|------|-----|--------|------------------------------|------|
| 1 | 집합투자증권 | 맥워리인프라 | 9.31 | 6 | 집합투자증권 | ISHARES MSCI USA MINIMUM VOL | 6.08 |
| 2 | 집합투자증권 | ISHARES PHILX SEMICONDUCTOR ETF | 7.77 | 7 | 단기상품 | 은대(우리은행) | 5.87 |
| 3 | 집합투자증권 | ISHARES GOLD TRUST | 7.67 | 8 | 집합투자증권 | VANGUARD INFO TECH ETF | 5.48 |
| 4 | 집합투자증권 | ISHARES 20+ YEAR TREASURY BO | 7.64 | 9 | 집합투자증권 | ISHARES CORE MSCI EMERGING | 3.94 |
| 5 | 집합투자증권 | GLOBAL X NASD 100 COV CALL ETF | 6.35 | 10 | 집합투자증권 | XTRACKERS HARVEST CSI 300 | 3.82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백만원, %)

| 종목명 | 종류 | 자산운용사 | 설정원본 | 순자산금액 | 발행국가 | 통화 | 비중 |
|---------------------------------|------|---|------|-------|------|-----|------|
| 맥워리인프라 | 수익증권 | 맥워리인프라 | 335 | 315 | 대한민국 | KRW | 9.31 |
| ISHARES PHILX SEMICONDUCTOR ETF | 수익증권 | ISHs PHILX Semiconductor ETF | 297 | 263 | 미국 | USD | 7.77 |
| ISHARES GOLD TRUST | 수익증권 | ISHARES COMEX GOLD TRUST | 247 | 260 | 미국 | USD | 7.67 |
| ISHARES 20+ YEAR TREASURY BO | 수익증권 |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 226 | 258 | 미국 | USD | 7.64 |
| GLOBAL X NASD 100 COV CALL ETF | 수익증권 | GLOBAL X NASDAQ 100 COV CALL | 264 | 215 | 미국 | USD | 6.35 |
| ISHARES MSCI USA MINIMUM VOL | 수익증권 | ISHARES EDGE MSCI MIN VOL US | 240 | 206 | 미국 | USD | 6.08 |
| VANGUARD INFO TECH ETF | 수익증권 | Vanguard Information Technology ETF | 203 | 186 | 미국 | USD | 5.48 |
| ISHARES CORE MSCI EMERGING | 수익증권 |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 161 | 133 | 미국 | USD | 3.94 |
| XTRACKERS HARVEST CSI 300 | 수익증권 | DEUTSCHE X-TRACKERS HARVEST CS300 CHINA | 132 | 129 | 미국 | USD | 3.82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 종류 | 금융기관 | 취득일자 | 금액 | 금리 | 만기일 | 발행국가 | 통화 |
|----|------|------------|-----|------|-----|------|-----|
| 예금 | 우리은행 | 2015-08-03 | 198 | 0.46 | | 대한민국 | KRW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백만원)

| 성명 | 직위 | 나이 | 운용중인 펀드 현황 |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 | 협회등록번호 |
|-----|-----|----|------------|-----------|-------------------------|------|------------|
| | |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
| 최미영 | 부사장 | 41 | 77 | 2,276,163 | - | - | 2119000125 |
| 김태현 | 과장 | 37 | 77 | 2,276,163 | - | - | 2119000109 |
| 최명혁 | 사원 | 28 | 77 | 2,276,163 | - | - | 2119000110 |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기간 | 운용전문인력 |
|-------------------------|--------|
| 2019.01.25 ~ 현재 | 최미영 |
| 2019.01.24 ~ 현재 | 김태현 |
| 2019.01.24 ~ 현재 | 최명혁 |
| 2018.05.29 ~ 2019.12.06 | 차인식 |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전기 | | 당기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자산운용사 | 2 | 0.06 | 2 | 0.06 |
| 판매회사 | 5 | 0.15 | 5 | 0.15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0 | 0 | 0.00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보수합계 | 8 | 0.22 | 8 | 0.22 |
| 기타비용** | 0 | 0.00 | 1 | 0.04 |
| 매매·중개수수료 | 1 | 0.02 | 6 | 0.17 |
|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 1 | 0.02 | 6 | 0.17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0 | 0 | 0.00 |
| 합계 | 1 | 0.02 | 6 | 0.17 |
| 증권거래세 | 0 | 0.00 | 0 | 0.01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 | 총보수 · 비용비율(A) |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 합계(A+B) |
|----|---------------|------------------|---------|
| 전기 | 0.8729 | 0.0244 | 0.8973 |
| 당기 | 0.9159 | 0.1935 | 1.1094 |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팀캘린저자산배분A형(IBK자산운용)'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에서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헤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